

Japan Weekly Digest

2011. 10. 15. ~ 10. 21.

☐ 금주의 이슈

- 한·일 정상회담 개최

☐ 일본기업전략

- 히타치 화성, 태양전지용 도전필름 최초로 해외생산
- 일본 코스모석유, 한국기업에 생산위탁 검토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산업구조심의회, 신산업구조분과회 개최
- 중국과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시

☐ 보고서 리뷰

- 수직적 외국 직접투자 :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연구,
경제산업연구소, 10월 15일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한·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·일 FTA체결 교섭 조기 재개를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합의
 - 양국 정상은 한·일 FTA 재개문제에 대해 실무 교섭을 서두르기로 함
 - * 최근 한미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고,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짐
 - 이명박 대통령은 “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” 면서도 “FTA는 양국이 윈 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견해가 있을 수 있다” 고 선을 그었으며, 이는 현 상태로 FTA가 체결될 경우 한·일 무역역조가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됨
 - * 이와 관련, 일본경제신문은 한국은 김 등 농산물의 일본시장접근 확대에 신중한 일본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
- 통화스와프(교환)협정의 자금지원 한도 확대
 - 양국 정상은 원화와 엔화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130억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
 - *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“통화 스와프는 경제·정치·외교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공통 인식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” 면서 “한·일 관계 전반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다” 고 설명
- 과거사 문제
 -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“한·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도 있다” 면서 “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” 고 강조하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을 촉구
- 이 대통령의 방일 문제
 -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로부터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“언제든지 필요하면 갈 수 있다” 면서도 “한·일간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노다 총리에게 말했다” 고 밝히면서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음
- 기타 북한의 핵 폐기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·일간 협력 및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반납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히타치 화성, 태양전지용 도전필름 최초로 해외생산

- 히타치 화성공업이 태양전지나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도전필름을 최초로 해외에서 생산기로 함. 약 250억엔을 투입, 공장을 건설하여 2013년 4월 가동 예정이며 태양전지용 생산량을 현재보다 4~5배로 늘릴 예정임
- 도전필름은 세계시장점유율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히타치 화성을 비롯하여 일본기업이 90%를 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음
- 중국에 태양전지 등의 공장이 집적해있어 향후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생산도 중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
- 신규 공장은 상해시 주변에 건설, 태양전지용 제품생산이 주력으로 년산 200만㎡의 생산능력을 보유
- 신규 공장에서는 중국의 수요급증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일본시장에만 의존했던 생산거점을 분산하여 지진재해 등의 위험이나 급격한 엔高에 대응한 환리스크 절감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중국에서는 정부가 태양전지나 액정패널 육성을 추진. 중국메이커의 진입·증산 외에 외국기업의 진출도 줄을 잇고 있음. 특히 태양전지는 2012년에는 세계 전체의 약 80%가 중국에서 생산, 관련 부재의 시장도 확대될 전망
- 일본의 민간연구기관에 의하면 2020년에 세계 태양전지 부재시장규모는 2010년 대비 2.7배인 6조 8,000억엔에 이를 전망

□ 일본 코스모석유, 한국기업에 생산위탁 검토

- 일본 코스모석유는 포괄적 제휴파트너기업인 현대오일뱅크에의 석유제품 생산위탁을 검토할 뜻을 밝힘. 휘발유 등의 내수감소로 일본내 정제능력의 축소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한·일간 제휴를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기하겠다는 의도임.
- 양사는 석유화학분야에서 합작회사를 설립, 석유화학제품인 파라키시렌 신공장을 건설. 코스모석유는 지진재해 이후 현대로부터 제품을 조달받고 있으며 주력인 석유사업에서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음
- 코스모석유는 상호 정유소의 수익성을 높이는 외에 재해 등의 리스크 분산 효과도 고려하면서 자체 공급능력계획에 맞추어 구체적인 위탁내용을 조정할 방침임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산업구조조심의회, 신산업구조분과회 개최

○ 개최 취지

- 지금과 같은 6중고하에서는 산업공동화와 고용 감소,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력 저하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어렵다고 판단, 신산업분야 창출을 위한 관민일체의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일본재생전략 등에 반영

○ 중점 검토사항

- 국내 잠재수요를 개발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
- 글로벌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환율변동에 강한 고부가가치 분야
- 수요자 관점에서의 에너지정책

□ 중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시

○ 일본은 중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(PPH: Patent Prosecution Highway)시행을 금년 11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합의

- PPH를 이용함으로써 중국에서 자사의 기술을 신속하게 특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어 일본기업들은 대중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됨

○ 글로벌화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권리화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

- 이 때문에 특허청이 특허권심사 하이웨이를 추진,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신속한 특허권 취득 및 권리보호에 나섬
-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특허출원건수가 급증. 2010년 39만건에 달하여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로 부상하는 한편,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특허출원도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음

○ 중국과의 PPH로 선제적 대응

- 지적재산권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, 중국에서는 조기심사 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이 국익·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여 자사기술을 보호받고 싶은 유저들은 PPH 도입이 절실
- 중국의 경우와 같이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사의 질과 양을 양립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, 이에 PPH를 이용하면 심사부담의 경감과 함께 심사의 정확성도 높힐 수 있음

◆ 보고서 리뷰

『수직적 외국직접투자 :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연구』

경제산업연구소, 10월 15일

- 본 자료는 산업공동화문제와 관련하여 Helpman류의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적용하는 경우, 예상되는 여러가지 플러스효과를 들어 공동화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 등을 다루고 있음
- TV나 자동차와 같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식노동자와 비숙련 노동력이 필요함. 지식노동자는 주로 제품의 개발과 제조공정 설계, 기업조직의 경영 등을 담당하는 반면, 비숙련노동자는 제품의 제조를 담당.
-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노동자가 창출하는 지식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임. 예컨대 일본에서 개발된 도요타의 자동차는 태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으며, 역시 일본에서 디자인된 유니클로 의류는 중국에서도 생산가능하며 지식노동자가 창출하는 지식은 소위 기업특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경을 넘나들 수 있음
- Helpman(1984)에 의하면, 도요타나 유니클로와 같은 일본기업이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을 중국이나 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은 지식노동자가 많은 한편 중국은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력이 많기 때문임
- 결과적으로 생산거점은 일본이 아닌 중국에 입지하게 되며,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경우 개별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도 일본과 중국 전체로서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해 짐
- 해외생산으로 얻어지는 수입의 일부는 일본의 지식노동자에게 대가로 환류되고, 일본은 그 대가를 가지고 다른 재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게 됨
- 따라서 일본경제 전체로는 해외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없고 국내고용도 감소하지 않으며, 오히려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으로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됨
- 그런데도 산업공동화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음. 기업이 수시로 원활히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국내 실업과 기업의 해외생산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면 기업의 해외생산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해명이 부족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수직적 외국직접투자: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연구』 경제산업연구소, 10월15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users/tanaka-ayumu/serial/007.html>

- (2) 『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에 관하여』 리소나은행, 10월18일

*출처:<http://www.resona-gr.co.jp/resonabank/nenkin/info/note/pdf/201110.pdf>

- (3) 『IT투자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산업별 실증분석』 경제사회종합연구소, 10월18일

*출처:http://www.esri.go.jp/jp/archive/e_dis/e_dis280/e_dis277.html

- (4) 『긴밀화하는 기업의 거래네트워크』 경제산업연구소, 10월18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apers/contribution/watanabe/04.html>

- (5) 『소득수지흑자가 경상수지흑자를 유지』 부국생명, 10월21일

*출처:http://www.fukoku-life.co.jp/economic-information/report/download/report_VOL220.pdf

- (6) 『정치경제학의 신전개』 일본은행금융연구소, 10월21일

*출처:<http://www.imes.boj.or.jp/research/papers/japanese/kk30-4-5.pdf>